‘해(海)피니스: 폐어구 재활용·상생 해루질 공모전’ 포스터. 어촌어항공단 제공◆어촌어항공단, ‘대국민 폐어구 재활용‧상생 해루질 공모전’이디어·웹툰 분야 총상금 980만원 수여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海)피니스: 폐어구 재활용·상생 해루질 공모전’(부제: 제9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2016년 제1회를 시작으로 대국민 수산자원 관리 정책 참여와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올해 9번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유령어업 및 해루질(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과 관련된 사진·웹툰 공모전을 통해 대상(김철기 작 ‘갯벌-사랑과 전쟁’) 포함 총 20점을 시상한 바 있다.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웹툰, 총 2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분야는 폐어구 재활용 활성화 및 재활용품 제작, 웹툰 분야는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상생에 대해 진행된다.모집은 오는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팀(3인 이하)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온라인상(수산자원을부탁해.kr)으로 등록·제출하면 된다.향후 공단과 해수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2), △최우수(2), △우수(4), △장려(6) 등 총 14작품을 선정해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상금 98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어촌어항공단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기능 상실 어구 처리에 대한 애로, 해루질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 등 바다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며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심벌마크. 어촌어항공단 제공◆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 5차 정기교육 29일 대면 실시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센터장 정도섭, 이하 종합센터)는 상반기 마지막 정기 교육인 ‘귀어귀촌 정기교육 5차’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종합센터는 금년 차수별 정기교육을 통해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귀어귀촌 희망인을 대상으로 어업과 어촌, 어촌비즈니스 등 귀어귀촌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초 지식 습득을 지원해 왔다.29일 실시될 5차 정기교육은 지난 상반기 진행됐던 다양한 교육의 마무리 교육으로, 상반기에 종합센터에서 진행했던 정기교육과 함께 이번 교육을 수강한 이는 전반적인 어촌에서의 창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귀어귀촌 지원정책 △귀어귀촌 정책자금 및 활용방법 △창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어촌지역 안내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초 이론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와 함께 교육생이 직접 어촌에서의 창업을 위한 창업계획서 작성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5차 정기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이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www.sealif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80명 이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특히, 이번 교육은 종합센터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협업해 귀어귀촌 희망인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 재학생들도 참여한다.졸업 후 수산분야 취·창업 예정인 이들은 대학에서 습득한 수산업 관련 기술 지식과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창업 관련 지식을 접목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도섭 귀어귀촌종합센터장은 “이번 정기교육은 어촌에서의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의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료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귀어귀촌을 실행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